**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시편 39편 1-13절>**

**1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6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10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12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에 대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 바람 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고, 또한 답을 알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을 헤쳐가야 하기도 합니다.

삶은 쉽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처한 한 신앙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이유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악인’이라는 말과 ‘우매한 자’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심각한 육체적 질병이나 영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등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복합된 상황 속에서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속으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들을 홧김에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 이 사람은 입을 다물기로 작정합니다.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자기 입에서 나쁜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는 것을 넘어, 당분간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실수하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 교묘히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침묵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묵묵히 끌어안고 걸어간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여인과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짜증과 발작과 기행은 심각해져 갔고, 그는 그런 아내와 그 아내 몫의 다른 집안일들까지 받아 안고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만 했을까, 아마 수도 없이 속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세상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기독교윤리학자인 그에게 어떤 명쾌한 답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고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주위에 책임지지 못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지도 말고, 거기에 그럴 듯한 해석이나 설명을 붙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침묵이 가져오는 유익이 적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정직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유익은 이것입니다.

그 고통스런 침묵의 끝점에서 비로소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쏟아놓고 싶은 말들을 참고 참고 참는 가운데, 비로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치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듯 터져 나오는 이 기도는 결코 가벼운 인간의 말일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죽을 지 그 정확한 때를 알려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지 앎으로 내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제가 그걸 또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는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일생이란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하고 든든하다 생각하며 의지하던 것들도 어느 한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한 순간이요, 우리의 성취가 빛이 바래는 것도 한 순간이며, 우리가 축적해 놓은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한 순간일 것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처럼 허깨비 같은 것을 좇아 다니기에 바쁘고, 자신이 지금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좇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재물을 쌓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모은 사람도 죽고 나면 그것을 다 두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7절에서 시인은 이에 대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스러질 때 같이 스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위험과 죽음이 닥쳐와도 든든히 설 터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둘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홀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꼭 들어야 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물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아일랜드 시인 몽크 기본의 시 중에 “마지막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할까.

바보들만 두려워하리라.

죽음은 한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는 것이니.

내 친구들이 하는 여행은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아는 것 하나.

나는 그가 있는 곳에 간다.

이 작은 문 앞에서 주춤하는 바보들아,

너희들 앞서

수많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이 이 문을 지났는데

마냥 망설이고 있을 텐가?

너희의 경우는 남들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지 않다.

너무 고요하다고?

이곳에서 충분히 시끄럽지 않았더냐?

담대하게 가라.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위대함과 온유함이 있으니

너희도 기쁘게 따라가라.

마지막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풍년이 들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곳간에 다 쌓지 못할 정도니, 지금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그 쌓아둔 것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다 두고 살았으나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걸음이 그저 정처 없이 방황하는 걸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들로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